

관음보살상(몽위관음)(하쿠호 시대 국보)

‘몽위관음’으로 알려진 이 높이 86.9cm의 동상은 아스카 시대(593~710년) 후기의 작품으로, 악몽을 길몽으로 바꿔준다는 전승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.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는 보살 중 하나인 관음보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희망을 베풀기 위해 스스로 열반에 드는 것을 늦춘 존재입니다. 오른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은 시무외인이라고 불리는 수인의 한 형태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.